



4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본격 활동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윤 4월 25일) 제2557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여름철 코로나 확산방지 방역철저”

## 전북도, 무더위쉼터 빠른 개관

### 송 지사, 계곡 등 3밀 공간 철저한 사전 대비 주문 하반기 경제정책 도정연계 실질적 성과도출 지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여름철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한 특별 대책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등 여름철 3밀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 19 청정지역인 전북을 방문하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 계곡 등 여름철 관련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등을 강조했으며, 계곡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코로나 19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밀집해소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밀폐, 밀집, 밀집 3밀 공간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를 분석해 각종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

규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므로 이를 도정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동안 소규모 전통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지

만 정책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코로나19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여름철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2020 전북 보도사진전 감상하는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전주덕진공원 시민갤러리에서 열린 ‘2020 전북 보도사진전’에 참석해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전북 보도사진전은 21일까지 7일간 운영되며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6시에 마감한다.

### 코로나19·폭염 이중고... 임시 대처쉼터 물색에도 만전

코로나19와 폭염이 겹친 올해 전북도가 현재 폐쇄 중인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의 빠른 개관과 함께 임시 대처쉼터 물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속에 경로당 등이 폐쇄 중인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즉시 무더위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운영방안을 마련, 폭염에 적극 대응토록 지시했다. 현재 폭염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정된 도내 무더위쉼터는 모두 5,117개소로 이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복지시설 4,585개소가 보건복지부 휴관 권고로 운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되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무더위쉼터 개관을 위해 관련 운영지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먼저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관공서, 은행 등을 제외한 무더위쉼터 4,858개소(현재 폐쇄된 노인복지시설 포함)에 대해 방역수칙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선정,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더위쉼터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관리자는 무더위쉼터 시설대표자를 지정, 시설 내 1회 발열 소독 및 수시 환기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등을 관리, 시설 내 이용객들의 입장 전 발열을 체크 이상이 있을 시 격리 후 신속하게 인근 보건소에 신고,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더위쉼터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시설 수용 전체 인원의 50%

이하 이용, 시설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와 출입명단을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꼼꼼히 체크해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예정이다. 아울러 사람들의 접근이 쉽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정자, 나무그늘 등을 임시 야외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폭염대책기간에 운영할 폭염 T/T팀을 구성, 소관 부서별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도내 시민들의 폭염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그늘막 521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부서에서는 독거노인, 노인돌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건설부서에서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야외 공사현장 휴식시간 30이상 운영, 열사병 예방 수칙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서에서는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환경개선에 16억원, 가축면역증강 5억원, 양식장시설 지원 3.7억원 등 폭염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본부에서는 운영지원자 응급 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외에도 부서별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김양민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폭염대책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국선대리인 도움받는다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단지 놀이장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다. /정은성 기자

### ‘시세 30%’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덜다

전주시, 지자체 최초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 인근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 가능한 20호의 리모텔링을 진행했다. 주택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 형태이며, 냉방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결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입주 자격은 만19~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2·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다르나 17㎡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임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a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

김영병 의심되면 '1339' 로